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인터뷰

“범야권 후보 단일화로 정권교체”

만난 사람=정후식 정치부장

12월 대선과 그에 앞서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동교동계 인사들이 바빠졌다. 후보들이 저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을 내세우며 구애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다.

광주일보는 21일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82)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나 DJ 서거 3주기를 맞은 소회와 이번 대선을 보는 시각 및 전망을 들어봤다. 권 고문은 23일 목포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음악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엊그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였다. 한국 정치에 ‘DJ 정신’이 잘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도식 때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DJ 정신 계승’을 약속했다. 그



민주당 후보들도 그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야권은 물론 안철수 원장과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리라 믿는다.

-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MB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반MB로 정권심판을 바라고 있다. 안철수 원장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해야지 3파전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범야권 후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 지난해 한국외대 대학원 영문학과에 입학해 ‘민학도’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데.

▲정치 입문 전 목포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해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다. 2007년 2월 교도소 출소 후 김 전 대통령을 빙고 향후 활동계획을 묻기에 ‘정치는 하지 않겠다. 동시에 시험에 합격해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국어시험에 자신이 없어 접었다. 대신 영문학

민주 대선 후보들

잇단 러브콜 불구

동교동계 중립 지킬것

들에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인여천(事人如天), 인내천(人乃天)’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국가를 위해 현신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국방·외교·통일 등 국정 각 분야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동교동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아전인수격 해석도 많은데 좌장으로서 입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대국과 통일한국의 초석을 다졌으며, IT강국, 한류의 기반을 닦았다. 민주당 후보들이 그 정신을 받들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교동계 인사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희호 여사와 저는 중립을 지키면서 후보가 단일화되면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 4명의 후보와 여러 차례 만나왔다. 인생여정과 정치경력은 다르지만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손색이 없는 인사들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시소게임으로 경선 흥행을 견인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 전 대통령은 병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야권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소망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연대, 범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전 대통령은 서거 직전 6·15 9주년 행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 야권통합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4명 추도식 때 참석

‘DJ정신 계승’ 약속

경선 흥행몰이 했으면

석사에 도전했다. 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했다. 올해 초에는 전집선암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리포트는 꾸준히 제출했다. 박사학위까지 도전할 것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권 고문은 김 전 대통령을 45년간 보필하며 만년 21인자 자리를 감수했던 정치인생과 그 과정의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하며 “고생했지만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23일 오후 7시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주모음악회에는 이희호 여사,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who@kwangju.co.kr
/시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도소에 인권평화센터·공원”

김두관, 광주 5·18관련 대선 공약 발표

기무사터 인권역사공원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 선대위는 21일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적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균 전 국회의원 등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인권역사공원 조성 ▲5·18 국립묘지 ▲교도소 ▲5·18 아카이브센터(광주 카톨릭센터) ▲도청을 연결하는 인권평화밸트 구

업과 5·18 민주유공자 보훈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이를 위해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평화센터 및 평화공원 조성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트라우마 치유센터 및 요양병원 건립 ▲옛 기무사령부 자리에 인권역사공원 조성 ▲5·18 국립묘지 ▲교도소 ▲5·18 아카이브센터(광주 카톨릭센터) ▲도청을 연결하는 인권평화밸트 구

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3~2017년까지이며, 총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복지사업을 위해 5·18 민주화보상법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민주유공자 등에 관한 복지연금제도 도입 및 시행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준하 선생 몸에 의문의 주사 자국”

민주, 1993년 보고서 재공개… 정부 재조사 촉구

민주통합당은 21일 고 장준하 선생 사망 시 몸에 의문의 주사자국이 있었다는 당시 검안의 증언을 정착한 199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재공개하며 거듭 정부 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기홍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93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정착한 검안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장준하 선생 사인은) 추락 실족사가 아니라 원형의 인공물체에 의해 두부골절이었다”면서 “더 이상한 것은 오른쪽 팔과 엉덩이에 의문의 주사자국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부대표는 “주사 자국과 관련해 마취제 같은 게 있었다면 유골에 그런 성분이 짐작되는 걸 밝혀낼 수도 있다는 게 법의학자의 의견이다”며 “유족은 유골 손상을 감수하고 라도 정부가 나서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가 조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2~2004년 의문사진상구명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12가지의 추락 자세를 분석했는데, 모든 자세에서 머리 한 군데에만 힘들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락사 가능성을 축소했다.

한편, 유신정권 시절의 장 선생 타살의혹 제기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전당대회 직후, 장준하 선생 타살의혹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과거 얘기만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직속으로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몇 년간 (장준하 선생 사망 사건을) 조사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너무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에 그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日 ‘독도 ICJ 제소’ 제안… 정부, 수용 않기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매우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측에)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또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이나 조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가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이 ICJ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 한국과의 각료회의 중단 등 보복책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개성공단 총 생산액이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1~6월) 총 생산액은 2억360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의 1억9201만 달러보다 22.95% 늘어난 수준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이에 따른 5·24

상반기 개성공단 생산액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

조치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액은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월 생산액도 지난 3월 처음으로 4000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5월 4294만달러, 6월 4289만달러 등으로 4000만달러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액의 꾸준한 증가는 노동집약형 구조에서 북측 근로자들의 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불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혜택

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 일반상가 건물 : 30억